

결핵성 흉막염 진단에 있어서 ICT Tuberculosis[®]검사의 효율성

충남의대 내과 박희선*, 김명호, 이연선, 안진영, 권선중, 이규승, 김동원, 정성수, 김주옥, 김선영

결핵성 흉막염은 폐결핵에 못지않게 빈도가 높고 다른 질병, 특히 악성암의 전이 병변이 늑막일 경우와 감별을 해야하며 늑막조직검사에서 실패하면 다시 침습적으로 환자에게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ICT

Tuberculosis[®] kit는 *M. tuberculosis*에 존재하는 항원인 38-kDa 단백질에 특이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졌으며 이 38-kDa 단백질은 현재까지 가장 예민하고 특이적인 결핵항원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지사들은 보다 손쉽고 빠르게 검사할 수 있는 ICT Tuberculosis[®] kit를 이용한 검사가 결핵성 흉막염을 진단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조직학적으로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 항결핵제를 복용하기 전에 혈청과 늑막액을 얻어 검사를 시행하였다. ICT Tuberculosis[®] kit를 이용한 항체 검사는 혈청을 분리하여 즉시 또는 냉장보관하였다가 3일 이내에 시행하였고 늑막액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결과 판독은 시각과 검체를 정해진 부위에 더한 다음 15분 후에 하였고 통제선과 함께 시험선 영역에 선이 보이는 지를 보아 판독을 하였다.

결핵성 흉막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38명이었고 남자 27명(71.1%), 여자 11명(28.9%)이었다. 38명에서 20명만이 혈청을 얻을 수 있었다. ICT검사를 시행한 결과, 1명은 혈액에서 양성을 보였고 다른 한 명은 흉수에서 양성으로 판독되었으며 나머지는 음성을 보였다.

ICT Tuberculosis[®] 검사는 신속하고 손쉬운 장점이 있으나 결핵성 흉막염을 진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유용하지 않았다.

폐국균종의 임상적 고찰

중앙의대 내과 이상훈*, 정도영, 강순복, 박성진, 유지훈, 김재열, 박인원, 최병휘, 손동섭

폐국균종은 공동성 병소를 가진 만성 폐질환 환자들에서 국균이 이차감염을 일으켜 균구를 형성하여 객혈,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연자들은 1988년 2월부터 2000년 2월까지 폐국균종으로 진단된 36례에 있어서 그 임상적 증상, 기저질환, 진단방법, 치료에 대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 1) 총 36례중, 진단은 26례에서 병리소견으로 확진되었으며, 단순흉부사진이나 컴퓨터촬영에서 국균종의 소견이 보이면서 항체검사, 또는 객담배양에서 국균이 검출된 예가 7예, 방사선학적 소견으로만 진단된 예는 3예였다.
- 2) 평균연령은 53세였으며 성비는 2.27 : 1 로 남자가 많았다.
- 3) 가장 흔한 증상은 객혈(67%)이었으며, 기침, 혈담, 호흡곤란의 순이었다.
- 4) 기저질환의 빈도는 결핵(81%), 기관지확장증, 만성기관지염의 순이었다.
- 5) 흉부사진상 우상엽에서 가장 호발하며, 수술전의 병리학적 진단이 어려울 때 흉부컴퓨터단층촬영시 채워진동에서의 국균종의 위치변화, 진균배양, 혈청항체검사 등이 도움이 되었다.
- 6) 수술을 시행받은 20명중 2명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7명에서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객혈로 기관지동맥 색전술을 시행받은 7명중 4명이 재발하였고, 보존적 치료를 받은 14명중 1명이 객혈에 의한 혈액의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다.